

진·로·레·터

푸르름으로 가득한 7월입니다. 이번 진로레터는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소식을 전합니다. 올 여름도 진로레터와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1 (대전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전특수교육원(원장 조동열)은 4월 12일부터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별 요구에 따라 특성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 7종('찾아가는 직무체험교실', '직무마스터 과정', '현장실습 인턴십' 등)과 진로캠프, 직업기능경진대회 등 진로 탐색활동 및 대회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의 꿈과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동행버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동행버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약 100회 내외로 관내 특수학교(급)의 다양한 체험교육의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02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활동 실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급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학기 장애학생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에 대한 열의로 10개 체험관에서 학생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미래의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

03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전환기 학부모교육 운영



충청북도특수교육원(원장 신사호)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과 학부모 자조모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환기 학부모 취미창업클래스와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취미창업클래스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 자녀의 성장스토리 프로그램은 장애성인을 자녀로 둔 부모를 강사로 하여 양육, 진로 및 다양한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한 상담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주권역은 6월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나머지 권역은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4 (충청북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원장 신사호)은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충북 10개 시·군 39교 96학급 고등학교 과정 및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원은 전년도 실시 결과 및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 직장예절 및 스피치,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노동인권교육 등 4개 영역에 대해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을 계획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신청 학교로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05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 유니버설 안전예술단 출정식 및 시범공연



3월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장애인 안전예술단 및 가족, 안전공사 직원, 관계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 및 시범공연이 있었다. 안전예술단은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전기 안전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장애인 배우 스텝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관람 후 꿈을 실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응원 퍼포먼스로 전개되었다. 장애인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은 2020년 10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합격한 전라북도 내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졸업생 9명이 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협력으로 정부주도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맞춤형 훈련-전기 안전 직무)을 마친 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유니버설 안전예술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기 안전을 주제로 장애인들이 연극, 뮤지컬, 인형극 등을 공연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유익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06 (전라북도교육청) 2021년 장애인 직업준비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과 직업재활시설 간 협력을 통해 2021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이 부안 '바다의 향기(김 가공 및 포장)'에서 2021년 4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중심의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업 준비교육을 통해 현장을 경험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졸업을 앞둔 참여학생에게는 '바다의 향기' 업체에 취업 연계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년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상반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업을 통해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7개교 78명 학생이 기본 체험과정을 중심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 기본 체험과정에서는 기업과 연계한 현장감 있는 7개의 직업 체험관 중에서 2개의 직무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